

경영안정 도움 안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오는 18일 신청 마감에도 예산 대비 30%선 신청 영세업체 많고 사전 담보·보증 포화에 실패 낮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관광업체를 융자지원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신청이 예산 대비 30%선에 그치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사업체 특별 융자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1390건·1734억원을 신청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예산 규모의 30%선에 불과하다.

업종별 신청 현황은 여행업 346건·252억원, 관광숙박업 178건·518억원, 렌터카 81건·154억원, 관광식당업 73건·127억원 등이다. 건설·개보수는 6건·15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에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는 도내 전 업체 가운데 31%(346개소/1108개소), 관광숙박업 43%(178개소/419개소), 렌터카 68%(81개소/120개소), 전세버스 73%(44개소/52개소), 관광식당업 40%(73개소/181개소) 등이 신청했다.

반면 일반숙박업은 16%(104개소/654개소), 농어촌민박업 3%(120개소/4,326개소)로 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관광사업체의 54%(1108개소/2063개소)를 차지하는 여행업체의 경우, 1인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임대료나 종업원급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신청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이미 담보 및 보증이 포화되거나 타 기금 지원 중복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렌터카 등 비교적 규모 있는 업체인 경우에도 이미 담보 및 보증이 포화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숙박업의 경우는 자가 영입이 많아 경비 절감 등 자구책을 우선하고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업은 안전인증 요건 미비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상 5700억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가 이미 담보나 보증 포화로 이들에 대한 실제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도는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부담금리 0.62%)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지방분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대 국회의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대 국회, 자치분권 법률안 통과를”

지방분권협 등 긴급 간담회

전국의 지방분권 유관기관들은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 최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자치분권 법률안”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대 국회는 끝내 시대정신을 간파하고 지방민의 염원을 저버린 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을 무산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방 4단체 협의회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제·개정에 앞장서 온 우리는 곧

막을 내릴 20대 국회가 지역의 여망을 외면하며 지방민의 분노와 규탄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여·야 국회의원의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정당에도 각별히 부탁드린다”면서 “그동안 지방민이 절규했던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더는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제·개정해 지방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관련 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에는 정원식·강태재·조태영·김성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박재을 전국지방분권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협동총회재단

제주삼다수 SNS 이벤트

제주삼다수가 브랜드 모델 아이유와 함께한 광고캠페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기념해 SNS를 통해 '당.삼.무.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각각의 SNS 상에서 제주삼다수 공식 계정을 팔로우한 후 본인 계정에 [삼다수와 나는 ~] 사이 형태에 간단한 사연과 #제주삼다수 또는 #삼다수 해시태그를 적고 삼다수와 함께한 사진 또는 동영상상을 올리면 된다.

당첨된 39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1명), 갤럭시 버즈 플러스(5명), 삼다수앱 모바일 쿠폰 3만원권(33명) 등이 주어진다. 백금탁기자



승마체험에 나선 관광객들 14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승마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생활 속 불편, 미세먼지·악취 잡아라”

제주시 중점 추진사항 보고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악취도 강력 대응키로

제주시가 생활속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시는 14일 분관 회의실에서 고회법 시장 주재로 2020년 시정 중점사

항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3월 선정된 시정 중점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보고와 토론을 통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숲길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해 우선 1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제주도에 생활악취 저감을 위

한 시설 설치비 지원근거를 담은 제주도악취저감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조례로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악취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할 수 있다.

시는 또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의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환경부는 전국적인 문제인 음식점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도에 대한 분석과 저감시설 기종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시행 후 국비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우선 지방비로 시범사업을 추진, 민원이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노형동 일대 직화구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고질적인 민원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악취 포집 후 허용기준을 위반한 21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축사 밀집 지역의 악취측정 강화를 위해 악취 방지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축사 등에 대한 배출구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제도개선도 도에 요청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서귀포시, 대형기관 선정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1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형기관으로 선정·발표했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남원읍 남원리에 위치하고 있

다. 부지 6699㎡·건물 1741㎡(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치매전담실(24명)·일반요양실(24명)로 나눠 모두 48명을 수용할 수 있다. 치매전담실은 장기요양등급 2-5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치매상태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으면 입소 가능하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6월말을 즈음해 개원식을 갖는다. 직후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소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영중기자 yjhyeon@ihalla.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멋,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중 010-5015-1951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一(辛一) 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시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